

# <손기정 선수가 담은 꿈의 비밀!> 정답지

손기정기념관의 <손기정 선수가 담은 꿈의 비밀!> 속 미션들을 모두 해결했나요?  
아래 정답과 해설 그리고 꿈의 비밀들을 확인해보면서 나의 정답과 비교해보아요.

## 1. 필리피데스의 달리기!

**꿈의 비밀** 노력, 의지

**정답** NENIKHKAMEN

**해설**

기원전 490년,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는 침략한 페르시아군과 전투를 치렀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군대는 강력한 군대였음에도 아테네의 군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어요. 큰 승리를 거두자 아테네군의 병사였던 필리피데스는 40km의 마라톤 평야를 열심히 달렸어요. 아테네에 도착한 필리피데스는 "NENIKHKAMEN(우리 군이 승리했다!)"고 외친 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1896년 근대 올림픽의 부흥을 꿈꾼 쿠베르탱은 언어학자 미셸 브레알이 필리피데스 이야기와 함께 40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를 만들자고 했고 쿠베르탱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는 우승자에게 필리피데스 조각상을 만들어 상과 함께 주었어요. 손기정 선수는 마치 승리를 전하러는 아테네의 병사 필리피데스처럼 강한 **의지**를 안고 열심히 **노력**하여 마라톤 우승자가 되었고, 나라를 잃었던 시기에 한국(Korea)을 세계에 알리는 인물이 되었어요.

## 2. 신발이 이어준 인연!



**꿈의 비밀** 우정

**정답** 지카다비

**해설**

지카다비[地下足袋]는 엄지 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 사이가 갈라져 있고 아래 부분이 고무바닥으로 된 작업화를 뜻하는 일본어예요. 1936년 당시 달리기, 마라톤 등 육상 운동에 맞는 운동화가 없었기 때

문에 손기정 선수는 가장 구하기 쉽고 값싼 이 신발을 신고 달렸어요. 손기정 선수의 어머니는 손기정 선수가 달리기 가 아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아용 고무신을 사주곤 했어요. 어느 날, 손기정 선수가 평안북도의 한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손기정 선수의 어머니는 마음을 바꿔 달리기 선수를 꿈꾸는 손기정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카다비를 선물했어요.

**정답** 존.A.켈리

**해설**

존.A.켈리 선수는 1907년에 태어난 미국의 마라토너예요. 1936년 베를린올림픽 당시 손기정이 우승한 후 통통 부은 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 운동화를 벗고 맨발로 걸어 나오자 당시 18위였던 존.A.켈리 선수는 가벼워 보이는 손기정의 신발에 관심을 생겼고 손기정 선수에게 선물해줄 것을 부탁했어요. 신발을 받은 존.A.켈리 선수는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하며 미국 마라톤계의 전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손기정 선수에게 보스턴마라톤대회 참가를 추천하는 편지를 여러 번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 손기정 선수는 제자였던 서윤복 선수를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그 때, 존.A.켈리의 초청은 출전권에 도움이 되었어요. 신발을 선물했던 베를린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겼던 손기정 선수와 존.A.켈리 선수와의 **우정**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서윤복 선수는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을 하며 태극기를 휘날렸어요. 훗날 존.A.켈리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 때 손기정 선수는 모두에게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다, 한국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며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어요.

## 3. 우승을 위해 대륙을 건너 손기정!



**꿈의 비밀** 용기 도전

**정답** 서울

**해설**

손기정 선수는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 선수로서 현지 적응을 위해 경기 두 달 전인 6월 4일, 손기정 선수는 서울역(당시 경성역)에서 환영식을 가진 뒤 시베리아횡단열차를 탔어요.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해서 유럽 대륙으로 갈 수 있었던 시기였죠. 손기정 선수는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하며 신기록을 세웠고 우승 후보로 유력한 선수였지만 설레는 마음보다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강한 **용기**와 **도전**의식으로 마음이 가득차 있었어요. 손기정 선수는 열차가 정차할 때마다 역에 내려 체력 훈련, 달리기 연습을 했고 조선인이라며 차별을 당할 때에도 그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정답** 382

**해설**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손기정 선수의 번호는 382번이었어요.

손기정 선수는 '382번(番) 손기정(孫其禎)'이라고 티켓에 쓸 때 마라톤 우승을 예상했을까요?  
한 번 생각해 보아요.

## 4. 보스턴에 휘날린 태극기!



**꿈의 비밀** 믿음

**정답** 조선마라손보급회(조선마라톤보급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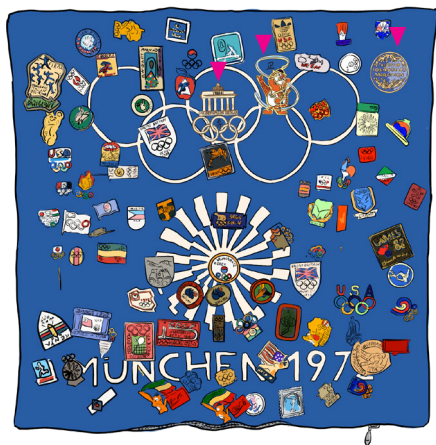
**해설**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어요. 일제에 의해 지워지고 잊혀진 우리 문화를 되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체육'도 그 중 하나였어요. 손기정 선수는 한국 마라톤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싶었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조선마라손보급회'를 만들었어요. 안암동 집을 숙소로 만들고 손기정 선수의 아내는 선수들의 식사를 만들어주었어요. 전국을 다니며 달리기 인재들을 찾아 다니자 제2의 손기정, 제3의 손기정이 되고 싶은 선수들이 모여요. 손기정을 향한 수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꿈이 모였고 손기정 선수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훈련도 시키고 강의도 했어요. 훈련을 시작한 후 손기정 선수는 매일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를 부르며 체력 뿐 아니라 애국심도 함께 키워나갔어요.

## 5. 세계인들과 나눈 미소!

**꿈의 비밀** 교류

**정답**



**해설**

해방 이후, 손기정 선수는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한 인물로 초청을 받았어요. 세계인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리 태극기 배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외국 선수들이 가져온 배지와 교환하며 우리나라와 태극기를 알렸어요. 교환한 세계 각국의 배지를 모아 액자로 만들기도 하고, 한데 모아 소중하게 보관했어요. 배지 뿐 아니라 엽서, 카드, 편지 등 사람들과 나눈 마음의 증거들을 귀하게 여긴 손기정 선수였어요.

## 6. 함께 할 때 빛나는 마음

**꿈의 비밀** 화합

**정답** 손기정 선수의 마음을 상상하여 진솔하게 작성한 의견 모두 정답



**해설**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되었던 국토에서 열린 우리나라 첫 번째 올림픽이었어요. 전세계가 역경을 극복한 한국의 모습을 보며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계가 서울을, 서울은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였어요. 손기정 선수는 서울올림픽의 성화 봉송 주자가 되었고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멋지게 달리기 위해 1년간 체력 연습을 했어요. 76세라는 고령의 나이였지만 열정은 청년 못지 않았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함께 겪은 수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이라는 축제에서 환하게 웃으며 성화 봉송을 하는 손기정 선수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손기정 선수의 미소는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하는 미소였기 때문이에요.

## 7. 되찾은 보물, 우승의 보물!

**꿈의 비밀** 끈기

**정답** 재질(금속), 색깔(녹색), 생김새(구멍이 뚫려있다. 코를 가리는 부분이 있다 등), 앞뒤로 길다, 좌우가 좁다, 목을 감싸는 부분이 살짝 올라간다 등 모두 정답

**해설**

그리스 청동 투구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코린트에서 제작된 투구로 고대 그리스 올림픽 제전 때 승리를 기원하는 의식용으로 만들어졌어요. 1875년, 독일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에서 발굴된 이 투구는 눈과 입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완전히 가려지는 형태인데 전세계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완벽한 원형을 유지한 투구가 거의 없어 매우 희귀한 유물이에요.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게 그리스 투구를 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손기정 선수는 우승을 했음에도 전달받지 못했어요. 이후 투구는 베를린 샤로텐부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세계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손기정 선수를 돕기 위해 오랜 시간 독일올림픽위원회에 항의했지만 거절되었어요. 투구는 우승자에게 주는 단순한 부상품이 아닌 마땅히 되찾아야 할 우승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손기정 선수는 특유의 **끈기**를 가지고 절대 포기 하지 않았어요. 결국 독일은 1986년 베를린올림픽 50주년 행사 때 손기정 선수에게 투구를 돌려주었어요. 손기정 선수는 "이 투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기증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서양에서 만들어진 유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었어요.



**꿈의 비밀** 도전 희망

**정답** 2시간 29분 19초 2

**정답** 자세, 옷, 표정 등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서술하면 모두 정답

**해설**

손기정 선수는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2시간 29분 19초 2라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어요. 인류는 마라톤에서 2시간 30분 보다 적은 기록을 낼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나라를 잃은 식민지하 조선의 청년이 전문적인 훈련도 받지 못하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지 못한 채 세워진 손기정 선수의 기록은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은 최고의 기록으로 평가받았어요. 손기정 선수의 우승은 식민지하 조선인들에게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고, 갖은 어려움에도 우승을 차지한 손기정 선수의 소식을 듣자 전국의 조선인들은 만세와 환호를 외쳤어요.

